



순창소방서, 코로나 선별진료소 화재안전 점검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11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순창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의 선봉인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보호복을 착용한 채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옥외 전기난로 등 화기 취급상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폐쇄여부 ▲예방순찰 강화 지도 등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활동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남원의용소방대원을 총동원,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 활동은 최근 지역 내 병원 및 기도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에 의한 것으로, 지역사회 감염환자 확산 방지를 위해 남원의용소방대원 800여명이 4~5명씩 조를 편성, 각 지역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관공서 등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감염 예방수칙 홍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외출자제 등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 4'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이벤트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4'를 진행한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 아젠다인 NEAD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의 공동체 구축을 의미하며, '찾아가는 NEAD'는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유형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인문학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주MBC 'FM모닝쇼 김차동입니다'를 통해 매주 일요일마다 송출되는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4'는 지역민들에게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2021년을 맞아 음식과 새해풍습을 통해 한중일 문화를 비교한다.

/익산=정영원 기자

'위대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봉준장군 탄생 제165주년 기념행사 개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지난 10일 오후 고창 동리국약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축소 진행됐다.

'제13회 녹두대상' 수상자인 신순철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봉준 고창 태생설'을 다시 입증하는 등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특성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봉정의식으로 현수, 봉정,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끌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죽령고(대나무죽에 술, 찹쌀 등과 발효한 증류주)를 올리며 참여자들이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성지와 사업과 기념행사,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등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대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의 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성금 모금에 고창군민을 비롯해 전국 수많은 분들이 울려퍼 주고 있다"며 "혁명의 정신



을 계승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을 세계 혁명사의 한 축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다. 억압받고 학대받던 민초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장, 전통시장 현장 지도 점검

남원소방서 박덕규 서장은 11일 겨울철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라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했다.

박 서장의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공설시장 및 용남시장의 관계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장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소방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전통시장은 노후 점포가 밀집해 있고 가연성 상품이 많아 급속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박 서장은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시장주변 화재취약요인 제거를 통한 소방시설 100% 가동 유지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 신성운 건축사, 안전관리분야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호원대학교 관제시설팀 신성운 계장이 2020년도 교육시설 재난·안전관리분야 유공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신 계장은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에서 10년간 건축 실무경력을 쌓은 뒤 2015년 호원대학교에서 교직원 생활을 시작, 2019년도에 건축 분야 최고 자격증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건축사의 전문성은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진단(4동 구조부 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 공사(도서관, 4동, 5동 외벽 조적조 균열 보수보강)를 선별 추진해 위험 시설을 조기에 제거했고, 설계 및 공법선정에서도 교육 재정 절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성운 계장은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크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쉽고 배움이 공존하는 호원대학교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성수면 직원, 100만원 장학금 기탁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11일 진안사랑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2020년 진안군 직원 전화전철도에서 11개 읍·면 중 1위를 차지하여 받은 시상금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기호 면장은 "좋은 의미로 받은 시상금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데에 직원들 함께 뜻을 모았고, 뜻깊은 일을 하고자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사, 이웃돕기 후원물품 기탁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지난 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사(인월면 소재, 주지 금강스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웃돕기 물품(현금 180만원, 라면 6box, 마스크 6box, 세탁제세 6box)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 대해 금강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물품이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면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기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롭고 힘든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경보기 무상 보급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등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11일 새벽 4시경에 금구면 월전리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실과 건물외벽이 소실되었다.

불이 나자 집주인은 거실에 있는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한 후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총 154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비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총 33가구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